



한농연, 지방선거 이렇게 뚫는다!!

농업경영인과 6.13 지방선거는 어떤 관계인가?

1) 농업과 지방자치제도

농업은 공업과 달리 강한 지역색을 띠고 있다. 농업생산조직도 일정한 지역을 범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생산조직도 자연적 조건이나 역사적 전통, 그리고 사회경제적 조건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농정으로는 각 지역에 적합한 농업생산이나, 정책수립이 어렵다.

지방자치제도가 농업에 대해서 갖는 의미는 지역이 안고 있는 구체적인 농업문제를 처방할 수 있는 지역농업발전의 주체를 정치적, 행정적으로 확립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지방정부는 사실상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시나 통제 속에서 움직여왔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나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입지가 아직도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정책일반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은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지역농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2) 6.13 지방선거의 의의와 중요성은?

지방자치제도는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점차 정착되고 있으나 그 한계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특히 농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지방농정이 정착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이 되어야 한다.

지난 2번에 걸친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현실에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각 지방자치마다 실정에 맞는 직접지불제나 농가소득보장 정책을 도입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말 쌀값폭락의 시기에서는 지자체에서 여러 방법을 채택해 폭락한 쌀값을 보전해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농업의 위기 상황 속에서는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

을 통해 건의서나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등 나름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에는 지역민원 해결에만 몰두하면서, 비농업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방의원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이들이 농업인의 지방농정 참여를 저해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농업경영인은 기존의 지방자치제의 교훈을 살려 이번 기회에 농촌에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체가 정착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농정이 정착되어야 한다.

올해도 농업위기의 현상은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다. 쌀개방 문제, WTO협상, FTA협상 등이 당장 드러난 문제이며, 한우산업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점점 그 산업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중앙정부 농정은 자체의 역할

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효율성으로 인해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를 해소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지역에 발붙이고 살면서 지역농업의 발전을 고민해 온 농업인들 뿐이다. 농업인들이 나서서 지방농정을 책임지지 않으면, 현재의 농업위기를 극복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위기를 극복하고, 창조적인 지방농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해야 한다. 아울러 한농연은 이들이 진출한 후에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농업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방의원 출마자들의 명확한 책임의식이 분명해야 할 것이며, 농민단체도 이에 맞춰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정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농연, 지방선거 이렇게 된다.

1) 한농연의 4가지 목표

첫째, 농업경영인 출신 지방의원 2배가 운동이다.

한농연은 이전부터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지난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의회 진출 활

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95년에는 126명이었던 지방의원이 98년에는 199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어내며, 지방농정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따라서, 올해 6.13 지방선거에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농업경영인 출신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

● 농업경영인 출신 지방의원 현황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특6광	계
광역의원	2	1	2	2	4	3	3	1	1	0	19
기초의원	23	11	16	28	20	26	31	21	1	4	181
계	25	12	18	30	24	29	34	22	2	4	200



며, 이에 따라 한농연은 지방의회에 400명 이상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2배가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2배가 운동을 통해 한농연의 사회·정치·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한농연은 98년 당시 단일 사회단체로는 최다인 199명의 진출을 이루어냄으로써, 높아진 사회·정치·경제적 위상을 보여줬으며, 활발한 지방의회 진출로 지역에서 농업인의 요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지방정치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지역농업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한다.

농업인의 요구를 대변해 줄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물론, 농업의 현실이나 농업인의 요구조건에 맞는 의정활동이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만, 이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이며, 6.13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원협의회'를 통해 지방의정활동이 한층 강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넷째, 일선 조직이 지방선거 대응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98년, 한농연은 지자체공명선거대책위원회 회원을 모집하여, 한농연의 후보로써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농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을 제대로 선출하기 위한 노력은 각급 연합회에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올해 6.13 지방선거에는 일선 조직이 후보 지원 외 다양한 지방선거 대응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 한농연,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하나?

한농연은 위의 4가지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한농연 지자체공명선거대책위원회 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한다!!

한농연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 조직역량을 총동원해 총력대응을 하기 위한 특별기구로써, 중앙연합회 이동우 사업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농연 지자체공명선거대책위원회」구성되었다.

한농연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한농연 후보 모집, 선거지원활동, 지방선거 출마자 교육, 각종 선거 전략 자료집, 일선 조직의 자발적·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참고로, 이번 선거에서도 농업경영인 후보의 경합이 예상되고 있는데, 농업경영인 후보의 경합은 조직의 분열을 가져오고,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수가 많았다. 따라서, 각 시군 대책위에서는 최대한 경합하는 후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책위 회원 모집에는 시군 대책위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 및 중앙에서는 이를 통보받기로 하였다.

한농연, 농어민신문과 함께!!

한농연과 한국농어민신문은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공동팀을 구성하고 농어민신문의 지면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민신문의 주요 기획주제로는 지방농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약 수립이나 선거법 해설 등 6.13 지방선거를 위해 필요한 기획기사를 한농연과 함께 준비하기로 하였다.

또, 농업인을 대표하는 출마자들을 농어민신문의 지면에 소개하며, 특히 대책위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은 한농연의 후보로써 농어민신문에 사진과 프로필 등을 게재함으로써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 '지자체공명선거대책위원회 회원'에 선
거지원 활동을 집중한다!!**

대책위는 농업경영인 출신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해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지원한다.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인으로서 대책위 회원으로 가입한 후보자를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대책위 회원이 아닌 자는 비용 부담에 의한 제한 지원을하기로 했다.

- 프로필(사진 및 경력) 홍보 : 농어민신문, 월간 한농연 등
- 지방선거 출마자 무료교육
- 선거운동전략 자료집, 정책 및 공약자료집, 지지제수첩 등 무료 제공
- 한농연(농업인)의 공식 후보자로서 명단 공개
- 농민단체 공동지원활동 유도
- 출마자의 당해 지역구 역대선거결과 통계자료 및 주요개황 자료 무료제공
- 한농연 및 농어민신문 순회 방문단의 격려방문
- 각도 연합회에 역할부여 및 출마자지원활동 독려
- 일일 점검사항 전달 및 진행사항 점검
- 유권해석 등 출마자에 대한 긴급지원업무 수행
- 지역신문 홍보대책 지원

우선 각 시군연합회와 도연합회의 추천을 통해 가입한 대책위 회원들에게는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여러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지방선거 출마자 교육으로 어려움을 해소한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선거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선거운동 방법을 습득하여 후보자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얻음으로써, 선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대책위 발족식을 겸한 1차 교육을 서울, 한농연 강당에서 실시하며, 출마자 교육의 주요 주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강 : 6.13 지방선거와 농업경영인의 자세
- 제2강 : 선거전략 수립 방안
- 제3강 : 연설행 및 거리유세 강화방안
- 제4강 : 농업경영인 출신 지방의원에게 듣는 선거운동
- 제5강 : 선거전략 작성 실전연습
- 제6강 : 후보자 농정공약 작성과 주요 농정과제
- 제7강 : 개정선거법 교육 및 선거자금 관리 요령

☞ '지방선거' 자료집 대로만 하면 된다!!

선거에 대비하는 각종 선거전략 책자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으나, 농업경영인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짚어주는 책자는 부족하다. 대책위는 이번 1차교육 자료집을 비롯하여, 선거전략 수립·조직·연설행·홍보 등 선거의 모든 것을 담은 선거전략자료집과 일정별로 정리한 지자체 수첩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한농연의 정책과 공약을 담은 자료집을 5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 각 도, 시·군, 읍·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1) 일선조직의 활동 왜 중요한가?

일선 연합회에서 지방선거 지원활동이라고 하면 우선 우리 시·군연합회 내지 읍면회의 농업경영인 출신이 후보자로 나왔을 경우, 당선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 이번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후보로 많이 나오게 되며, 따라서 지방농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을 올바르게 선출하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으로 많이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기초·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초·광역 단체장이 농업인을 위한 농정을 펼 수만 있다면 그 효과는 더욱 더 크기 때문이다.

2) 2가지 방향, 4가지 사업

이런 측면에서 각급 연합회는 이번 6.13 지방선거를 농업경영인 출마자에 대한 지원활동과 더불어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2가지 방향은 첫째, 농업경영인 출신 후보자들에 대한 적극 지원, 둘째, 농업인을 위한 기초·광역단체장 선출활동 적극적 전개이다.

이 같은 2가지 방향에 기초하여 각 일선조직이 지역농정 발전의 일대 전기가 될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업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이다.

① 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 출마자에 대한 지원

- 지지방문 정례화
- 도별 출마자 교육 실시
- 부정선거고발센터 운영
- 지역 농민단체와 결합한 공조활동 추진

② 농업경영인 출마자에 대한 대책위 회원가입 적극 유도

- 중앙단위 홍보역할 강화에 발맞추어 시군단위, 도단위 지방의원출마자들의 대책위 회원가입 적극 유도
- 자체 홍보계획 및 회원 확보대책 마련

③ 지역농정현안 부각을 위한 활동 전개

- 지역농정과 관련한 토론회, 발대식 등을 도단위와 시군단위로 확대
- 농업경영인 후보들이 이러한 내용의 공약을 적극 채택하고 이러한 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유도

④ 기초·광역단체장 대응활동

- 후보에 대한 농업관 공개질의 및 답변 유도
- 지역농정개혁 과제 자체선정 후 각 후보자에 공약화 유도
- 지역농정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각 후보 농정 담당자 초청
- 단체장 후보 초청 농정토론회 개최하여 농정공약 비교
- 농정공약 비교평가회 개최
- 단체장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3) 도와 시군연합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도연합회는 자체적으로는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도내의 출마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각 시군연합회가 지방선거 대응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지 독려해야 한다.

시군연합회에서는 읍면단위 책임자를 임명하고, 회의체를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한다. 여러 대응활동은 도연합회와 유사한데, 광역단체장 대응활동이 기초단체장으로 규모만 달라지는 것이며, 특히 토론회, 비교평가회, 지역농정현안 발굴 등 올바른 농정을 위한 지방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1998년 6월 21일 지자체 선거

아울러, 이번 대책위 회원 모집에 시군연합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 후보자격 심사 및 추천을 시군연합회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때문에 시군연합회에서 결정을 해야 한농연 후보에 대한 총력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전기로 맞이하자

한농연이 농민을 대표하며 지방의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95년,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하였으며, 3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치의 짧은 역사만큼 우리 한농연의 지역농업 발전의 기여도 짧을 수밖에 없다.

아직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지방정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고,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해결이 지방정치라고 생각하는 의문도 간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농정의 핵심은 과도한 중앙집중적

농정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게 창의적인 농정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농업경영인은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전기로 맞이하여야 하며, 그러한 자질을 갖춘 농업경영인 후보들에 대한 적극 지원과 각 단체장 후보들이 친농업적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경영인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다. **한농연**